

사명을 주시리라

성령강림절 후 열셋째 주일

오늘의 말씀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이 주간의 기도제목

- 1)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도 연동의 가족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 2)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분들

원로목사 이 성 희

Pastor Emeritus | Rev. Sung Hee Lee S.T.D

위임목사 김 주 용

Installed Pastor | Rev. Ju Young Kim Ph.D

부 목 사 계대윤 오한빛 김 환 이진우 이진희
박주안

음악목사 이성은

지도목사 이만규 박점분 이현주

석좌교수 김정은(장로회신학대학교)

협동목사 남윤희

협력선교사 유용현 김종성 두관석 김태환 오베드로
안길태 조다니엘 노 새 이용돌 금상호
서경석 이범찬 박소현 엄준환 김형걸
박희성 박재현 공성일 범정은

준전임전도사 전소망 조승연

지도전도사 민지수 신유진 장판규 조준용 최예원
조창우 조예은

찬양대지휘 방영호 진화신

오르간반주 김지리 김경아 신기루

피 아 노 김수정 박미경 이지원 정은혜





주 일 예 배

Order of Sunday Worship

I 부 : 오전 8시
인도 : 김 환 목사

II 부 : 오전 9시 30분
인도 : 오한빛 목사

전 주 Prelude	파이프 오르간 Pipe Organ	반 주 자 Organist
예 배 선 언 Call to Worship	시편 118:24-25	인 도 자 Presider
송 영 Doxology		찬 양 대 Choir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Presider
참회의 시간 Repentance	참회의 고백과 사죄의 확신 Confession and Assurance of Pardon	인 도 자 Presider
영 광 송 Hymn of Glory	예배합니다 I Will Worship You	다 같 이 Together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61. 시편 142편	인도자와 회중 Together

인도자 :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 중 :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인도자 :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회 중 :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인도자 :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회 중 :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인도자 :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회 중 :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인도자 :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회 중 :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인도자 :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회 중 :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인도자 :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회 중 :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신 앙 고 백 Affirmation of Faith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다 같 이 Together
찬 송 Hymn	22장(만유의 주 앞에)	일 어 서 서 *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디모데후서(2Tim) 3:10-17(P. 345)	(I 부) 소정훈 권사 (II 부) 고미경 권사
기 도 Prayer		(I 부) 이호진 장로 (II 부) 이정민 장로

* Congregation Standing, as able

..... 이진희 목사

HI COMMUNITY

YD YOUNG ADULTS & SINGLES

IV부 : 오후 1시 10분

• 찬양인도 : 조창우 전도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양		예 램 찬 양 팀
기 도		안 하 영
성 경 봉 독	에스겔 36:24-28	설 교 자
설 교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박주안 목사
축 도		박주안 목사

HI-청년공동체 소식

1. 성경 캠프

-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발걸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 곳곳으로 흘러갔는지 묵상합니다.
- 주제: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 일시: 2026년 9월 18-19일(금, 오후 7:30 - 토, 오후 5:00)
 - 장소: 팀 수양관(불광로18길 23)
 - 신청기간: 8월 30일(주일) 4부 예배 후
 - 문의: 박주안 목사(010-3447-3483)

2. 결혼식

- 박상민 형제와 현예원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6년 8월 29일(토) 정오 12시
 - 장소: L65호텔웨딩컨벤션 6층 garden

3.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장훈(8/25), 서호석(8/25), 안세실(8/26), 노영석(8/28), 류익환(8/28)

다음주 기도

강하니



수요기도회

8월 26일(수) ... 광야를 걷다(민수기 10:29-34) 인도 : 이진우 목사

새벽기도회

YD유튜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로 업로드 됩니다.

24일(월) 정직한 삶, 속죄의 은혜(에스겔 45:9-25) 인도 : 김 환 목사

25일(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에스겔 46:1-15) 인도 : 이진우 목사

26일(수) 백성의 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에스겔 46:16-24) 인도 : 이건희 목사

27일(목) 회복과 풍요의 원천, 하나님이 계신 곳(에스겔 47:1-12) 인도 : 김 환 목사

28일(금) 공평과 포용으로 분배되는 기업(에스겔 47:13-23) 인도 : 계대윤 목사

예비일 새벽기도회

29일(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나라(에스겔 48:1-14) 찬송 : 484장 인도 : 이진우 목사

• 기도 : 이대진 권사 • 특송 : 3남선교회

1.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작성 할 당시의 상황
 -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된 상태
 -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 황제였던 네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
 - 바울 인생의 마지막 시기
2.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을 지켰으니 (딤후 4:7)
3. 해피엔딩 vs 은혜엔딩
4.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를 받으리라 (딤후 3:12)
5. 은혜엔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 Believing ())
 - Belonging ())
 - Becoming ())
6. Believing ()):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
 - 모든 성경은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 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7. Belonging ()):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
8. Becoming ()):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하는 것
 - 나만 알지 않고 너에 대한 ()을 가지는 것
 - 너에 대한 () 하는 것
9. ()와 ()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 되었음이니라 (신 10:18-19)
10. 해피엔딩 보다 은혜엔딩

‘연동교회가 서 있는 곳’

연동교회가 서 있는 곳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7번지입니다. 붉은 벽돌과 단단한 석조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묵묵히 서 있는 풍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히 물리적 건물이 세워져 있는 교회의 자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13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친히 세우시고 다듬어 오신 ‘영적 주소’이자, 시대마다 눈물로 응답해 온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번 목회서신을 통해 우리 연동교회가 딛고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서 있어야 할 미래의 자리는 어디쯤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894년,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던 교회. 연동교회는 1894년에 세워졌습니다. 그해는 동학농민운동의 횃불이 타오르고 청일전쟁의 포화가 이 땅을 뒤흔들던,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민족 전체가 깊은 절망과 고통에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천민들의 삶이 타전이었던 연못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안락한 중심부가 아닌, 역사적 상황에 가장 불안했던 변두리에 세워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고 민족의 갈 길을 밝혀주었던 선배들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민족과 사회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동교회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벽을 허무는 평등과 해방의 자리에 서 있던 교회. 초기 연동교회는 신분제의 두터운 벽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뜨린 혁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담임이었던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선교사는 그의 조사이자, 조선 시대 가장 천대받던 갖바치 출신의 고관인을 1904년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초대 장로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사의 거대한 이정표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동교회의 모습에 비록 일부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통도 겪었지만, 연동교회는 인간의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눈으로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수저계급론’과 온갖 혐오와 사회적 양극화로 갈라진 요즘 시대에, 우리는 모든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낮은 자를 조건 없이 환대하는 평등과 해방의 자리에 연동교회는 다시 견고히 서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9년, 분열을 넘어 일치와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 한국 장로교회가 신학적 갈등으로 인해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갈라지던 1959년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연동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지향하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 운동, 즉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칼의 정신을 수호하는 신학적 보루였습니다. 교단 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속한 통합측 교단의 교회들이 지켜낸 영성은 폐쇄적인 독선이 아닌, 넓은 품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대화하는 ‘일치(Unity)’의 영성이었습니다. 분열과 반목이 일상이 된 현대 교계와 사회 속에서, 연동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본질 위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묶어내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자리에 6대 담임목사인 김형태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국제위원회 같은 WCC 중앙위원으로 세계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며 한국 교회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 원로목사인 이성희 목사님은 WCC 산하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연동교회는 WCC와 NCCK 역사에 중심적 위치에서 있습니다. 혹여 두 기관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쓴소리를 하며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도록 연동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07년 소아회, 무너지는 다음 세대를 재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1907년 한국 최초의 주일학교 효시인 ‘연동소아회’를 조직하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해 온 선구적 교회였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어린이가 모여 찬양하던 이 거룩한 전통은 오늘날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기독교적 위기 앞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인구 절벽과 탈종교화의 세속화 속에서 주일학교를 다시 살려낼 유일한 대안은, 과거의 화려한 기록이 아닌 연동의 자리 아래에 오르는 주일학교 회복을 향한 소명의 물줄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가슴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거목들을 키워내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있어야 합니다. 내년 2027년은 한국교회 최초 주일학교인 소아회를 세운 지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을 특별한 예배와 행사로 기념하며, 주일학교 재부흥을 소망하는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연동교회가 서 있는 곳은 과거의 영광을 박제해 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94년의 격동 속에서, 게일 목사와 고찬의 장로의 평등 공동체 안에서, 일제강점기 때에 개인의 구원과 나라의 독립을 지켜냈던 한태영 목사의 통전적 신앙 안에서, 1959년의 김형태목사와 이성희목사의 신학적 굳건함 속에서, 그리고 1907년 어린 영혼을 향한 소아회의 열정과 사랑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2026년 뜨거운 여름을 보낸 연동교회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7번지’라는 울타리를 넘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리, 다음 세대를 가슴으로 품는 자리, 세상의 지성과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미래의 자리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일구어 놓은 영적 터전 위에,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의 주소를 온전히 살아내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일구어 놓은 연동의 터전 위에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의 주소를 온전히 지켜내되, 다음 세대에게 연동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리고 그들을 살리는 밀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좌번호 :

이름 :

구역 :

신앙세대주 :



다음()을 채우거나 알맞은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일자	찬송	성경	기도제목
8/23(주일)	221장	시 88편	예배 중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소서

-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 ()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8/24(월)	222장	시 89편	가정마다 주를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	------	-------	-------------------------------

-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구원의 () ()시라 하리로다 ()

① 요새

② 바위

③ 목차

④ 방패

8/25(화)	223장	시 90편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	------	-------	-------------------------------

-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 () () 마음을 얻게 하소서

8/26(수)	224장	시 91편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	------	-------	--------------------------------

-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 ()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8/27(목)	225장	고후 2장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주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	------	-------	---------------------------------

-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 ()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8/28(금)	226장	고후 3장	열방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자유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	------	-------	-------------------------------------

-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 ()가 있느니라 ()

① 은혜

② 진리

③ 승리

④ 자유

8/29(토)	227장	고후 4장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	-------	---------------------------------------

- 우리가 이 보배를 () () ()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연동교회 찬양선교단

찬양팀(하늘·다올팀)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함께 예배를 세워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나의 찬양이
누군가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찬양은 재능이 아닌, 마음입니다. ♡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해요!

모집분야



싱어팀

하나님의 감동을 목소리로
함께 나눠요!



연주팀

악기로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찬양으로 섬기길 소망하는

연동교회 세례교인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분을 기다려요!

- ☑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분
- ☑ 함께 연습하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분
- ☑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세요.



연동교회 찬양선교단

문의

찬양선교단 담당자
하늘찬양팀 총무 김인교 안수집사
☎ 010-4415-2775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이, 경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의 열정입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이 큰 예배로 열매 맺힙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 되는 기쁨!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



찬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쁨!

젊은 열정과 다양한 은사가 모일 때, 예배는 더 뜨거워집니다!
청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어와나 단원 모집



모집기간 | 8월 16일(주일) ~ 8월 30일(주일)



대상

7세 ~
초등학교 6학년



장소

가나의 집
지하 2층 열림홀



입단비

한 학기 1인당 4만 원
(형제자매 동반 등록 시
각 1인 3만 원)



신청방법

QR 신청 또는 서면 신청서
(사무처 문의)



시 간 주일 오후 1시 30분 ~ 3시

활동기간 9월 6일(주일) ~ 12월 13일(주일) 15주



문의. 010-4735-0300

윤종훈 부장

알려드리는 말씀

8월 23일

▶예배

1. 다음 주일(30일) 3부예배는 김선태 목사(실로암안과병원 원장)께서 설교하십니다.
위임목사께서 청소년주일학교 순회예배로 유아·유치부에서 특별예배를 드립니다.

▶전체알림

※예배를 준비하며 대화는 자제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목사 동정 : 여름휴가중입니다. 귀한 재충전 시간과 안전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2. 당회 : 다음 주일(30일) 4부예배 후 위즈덤하우스에서 있습니다.
3. 국내선교부 : 직장인 선교팀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2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주일학교와 함께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냉커피와 빵, 직장인 예배 알림 전단을 2학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용품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교회 앞과 학교 앞에서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교구전체모임 : 이번 주 금요일(28일) 각 교구별로 진행됩니다(문의: 교구별 총무).
5. 영성훈련부, 평신도교육부 : 'YD 패밀리 코칭 페스티벌'이 9월 5일(토)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열립니다(강사: 이명진 공로권사). 신청접수는 30일(주일)까지 사무처 앞에서 받습니다.
• 문의: 영성훈련부 상담팀장 이혜석 권사 ☎ 010-9073-3625
6. 예배부 : 9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모임이 다음 주일(30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7. 찬양선교단 : 찬양팀(하늘찬양팀, 다울찬양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길 소망하는 연동 교회 세례교인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주보 9쪽 참조).
• 모집분야: 싱어팀, 연주팀 • 문의: 총무 김인교 안수집사 ☎ 010-4415-2775
8. 청소년주일학교 : 어린이부 어와나에서 다음 주일(30일)까지 하반기 어와나 단원을 모집합니다(주보 10쪽 참조). • 문의: 어린이부 부장 윤종훈 안수집사 ☎ 010-4735-0300
9. 상례부 : ① 연동동산 가족묘지 사용을 위해 일부 구역을 정비하여 묘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가족 묘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9월 13일(주일)까지 관심있는 성도님들의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사무처(설명회 일정은 개인 연락 예정)
② 9월 4일(금)까지 연동동산 진입도로 보수공사 예정으로 출입통제합니다. 성묘시 참고바랍니다.
10. 서울노회 : 신학대학원 입학에 위한 신학입학고시 청원과 기존 신학대학원을 위한 신학계속 청원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류(서울노회 홈페이지 참조)를 준비하여 다음 주일(30일)까지 사무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점심식사 :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오경덕 명예권사가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12. 강단꽃꽂이 : ①故 김기준 목사 13주기 추모하며 윤기자 김영진
②故 조윤환 은퇴집사 1주기 추모하며 기은실 은퇴장로

예배안내 & 새가족통계

■ 예배안내

정기예배	시간	장소	교회학교	모임 시간	장 소
주일 1부 예배	주 일 오전 8:00 ~ 9:00	본 당	영아부 (0~3세)	오전 11:30 ~ 오후 12:30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
주일 2부 예배	주 일 오전 9:30 ~ 10:30		유아부 (4~5세)	오전 11:30 ~ 오후 12:30	가나의집 2층 유아부실
주일 3부 예배	주 일 오전 11:30 ~ 오후 12:30		유치부 (6~7세)	오전 11:30 ~ 오후 12:30	가나의집 2층 유치부실
주일 청년 예배	주 일 오후 1:10 ~ 2:30		유년부 (1~3학년)	오전 11:30 ~ 오후 12:30	나사렛예배실(4층)
주일 오후 예배	주 일 오후 3:00 ~ 4:00		초등부 (4~6학년)	오전 11:30 ~ 오후 12:30	배들레헴예배실(3층)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00 ~ 8:00		어 린 이 부	오후 1:30 ~ 3:00	가나의집 지하2층 열림홀
새 벽 기도회	월~금 오전 5:30 ~ 6:00 토 오전 6:00 ~ 6:40		중 등 부	오전 11:30 ~ 오후 12:30	가나의집 지하 1층 다사람조이홀
중 국 어 예 배	주 일 오후 1:00 ~ 3:00	나사렛예배실	고 등 부	오전 11:00 ~ 오후 12:30	가나의집 4층 아가페홀
필 리 핀 예 배	주 일 오후 3:30 ~ 5:00	나사렛예배실	세례·입교 문답학교	오전 10:10 ~ 11:10	210호 세미나실

■ 2026년 9월 안내 · 봉헌위원 · 차량안내

예배	안 내	봉 헌	차량안내
1부	①강사경 ②홍양금 ③안창익 ④박경희 ⑤김준희	①박영수 ⑥박연숙	김현정 정운석 강기철 송대현 김영복 송상경 임백승 장재필 남득현
2부	①최은주 ②박미경 ③김학수2 ④이혜영 ⑤전옥경 ⑥김유미	①지용식 ⑥최동민	
3부	①이호진 ②김예주 ③김옥기 ④도은진 ⑤주영신 ⑥박민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12시 40분에 안내, 차량안내, 봉헌위원 등 예배 봉사자 모임있습니다.

* 안내위원은 예배 시작 30분전, 봉헌위원은 예배시작 20분전까지 봉헌가운을 착용하시고 입장 대기 바랍니다.

■ 새가족통계(지난 주일까지)

지 역	01교구	02교구	03교구	04교구	05교구	청년부	총 계
인 도	2	2	2	3	2	1	12
새가족	5	8	2	5	4	22	46

■ 새가족 아래 해당지역 구역지도자께서는 새가족실을 방문 또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등록자	성별	나이	주 소	교구	구역	인도자
46	권요나	남	50	중구 명동길	4	중구	

■ 중보기도 요청 본당 입구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데바레카 성경통독

8/23(주일)□	8/24(월)□	8/25(화)□	8/26(수)□	8/27(목)□	8/28(금)□	8/29(토)□
예레미야 25-27장	예레미야 28-30장	예레미야 31-33장	예레미야 34-36장	예레미야 37-39장	예레미야 40-42장	예레미야 43-45장

다음주일 기 도	(I) 최현수 장로	(II) 강철민 장로	9월 5일	기도 김태곤 안수집사
다음주일 성경통독	(I) 김경희 권사	(II) 허선미 권사	예비일	특송 청소년주일학교

다음주 설교예고	8월 30일	(I, II부) 새 영으로 읽는 에스겔(17):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겔 7:14-27) (III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살롬의 축복(삿 6:19-24) / 김선태 목사
----------	--------	--